

## 한·베트남 경제인 초청 오찬연설

먼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준 부 티엔 록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용성 회장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노이가 해방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양국의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저도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르엉 주석 각하와 만나서 2시간에 걸쳐서 양국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의 3분의 2 정도는 양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한 협력, 문화교류, 그리고 직업 교육·훈련을 비롯한 노동협력 등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호앙 쯙 하이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한국의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양국 정상외 대화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었고, 그 대화

의 결과는 모두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당장의 협력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잠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간 또 는 기업간·경제인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회담과정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과정에서는 너무 장기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을 만큼 양국간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베트남의 두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역규모가 4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프라와 전력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얼마 만큼 활발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도 일시적으로 상품 몇 개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금융, 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경영전략에 관한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베트남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기적인 협력관계, 글자 그대로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금 바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올 때 가지고 온 숙제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베트남 정부와 어떻게 협의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베트남 계획투자부 투자국장으로부터 매우 희망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국 기업인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베트남 경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부 티엔 록 베트남 상의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빈말로 덕담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EU 집행위원장과 약 두 시간에 걸친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룩셈부르크 총리께서 세계 한국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장을 거두었던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첫번째 이유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고자 마는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표정이 희망에 차 있고 밝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는 그 사람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세계로 열려 있는 개방된 시장이 그 사람들을 더욱더 유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 중화학 공업 전략을 비롯한 많은 경제정책과 전략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방문 중에 이 하노이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했던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밝고 훨씬 활발하고 의욕에 넘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홍강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제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국 기업인 여러분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고 상호간의 신뢰를 축적해 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 개별적인 상품에 관한 기술이든, 경영에 관한 것이든, 정부 운영에 관한 것이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협력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 기업인 여러분도 기술이전 사업의 경험을 전수하는 데 좀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희망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방대한 사업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투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자본과 금융을 뒷받침하는 국내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업인들께서 제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금융이나 자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단순 노동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직업교육의 측면, 또 일반기술이 아니라 고급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롯해서 경영의 노하우, 행정의 노하우 등을 베트남과 협력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베트남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력양성과 협력을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더 폭넓은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 있고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호치민 선생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베트남의 역사와 그 역사를 사랑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자존심을 매우 존경합니다.

베트남의 성공을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베트남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 되고 한국의 성공이 베트남의 성공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